



고용안정 · 모성보호 · 평등세상

전국여성노조

제 72 호
2006. 4. 3

발행인 : 나지현 발행일 : 2006년 4월 3일(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4층 (우)121-837 Tel.02-336-6377~8 Fax. 02-336-6246 kwunion@kwunion.or.kr http://www.kwunion.or.kr
서울 02)3141-6008 | 인천 032)521-3060 | 경기 031)246-2646 | 대전충청 042)254-2070 | 전북 063)286-7080 | 광주전남 062)363-1286 | 대구경북 053)253-8657 | 경남 055)242-5365 | 울산 052)292-3080 | 부산 051)557-5176

전국에서 3·8 여성대회 열려



2006년 여성노동 5대 요구

세계여성의 날 98주년을 맞이하여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3월 2일 여성노동연대회의 이름으로 국회 앞에서 본조는 2006년 여성노동 5대요구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안심 인천지부 검찰청 미화원분회장이 참석하여 전국여성노조가 당사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한 3월 5일 여성단체연합에서 주최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에도 참가하였다.

경기, 여러가지 캠페인 벌여

3월 9일 98주년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경기여성대회가 수원에서 열렸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만든 이번 행사는 동수원 뉴코아 아울렛에서의 사전 거리 캠페인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열린 기념식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거리캠페인에서는 성매매 방지 캠페인, 이주여성관련 캠페인 및 평택 대추리 일일주민모집 서명운동 등 각 단체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되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경기지부는 뉴코아 아울렛 판매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조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즉석에서 상담을 요청할 정도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여성! 빈곤과 차별을 깨고 세상의 중심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된 기념식에

서는 장기 부채중인 안산공대 조교 문제, 한부모들의 빈곤문제, 평택대추리의 평화지킴이 투쟁 등이 여성발언대를 통해 이야기되었다.

대구경북, 차별과 빈곤을 넘어



대구경북지부는 3월 8일 경북대 백호관에서 2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대회를 가졌다. 대회는 '영화상영'에 이어 기념식, 영상축사, 대회사, 문화공연, 참가단체공연과 대구지역의 노래대 '좋은 친구들'의 노래공연과 대구경북지부장의 빈곤과 차별을 위한 여성선언문 낭독으로 막을 내렸다. 대구경북지부는 경북대미화원분회와 안동대, 급식지회, 영양사지회가 참가하였으며, 영양사지회에서는 '내일의 노래'와 '이런 내가 되어야 한다'에 맞춰 몸짓을 발표하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부산, 차별철폐 걷기대회



기본적인 노동조합활동도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매일 아침 조합원들의 구호외치기, 조합원 만남의 날을 통한 교육과 토론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서울 박성옥)

인천, 세큐리트분회 해고철폐 투쟁



인천 세큐리트분회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한 집단해고 철폐투쟁에 들어갔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비정규법안을 처리한 뒤 두 번째 해고사례로 꼽히고 있다. 세큐리트 해고대상자들은 모두 조합원이며 근무연수는 대략 2~4년이다. 자동차 유리를 생산하는 세큐리트 인천공장에서는 비정규직 30여명 중 2년 이상 된 여성노동자 6명 모두에게 3월

부산지부는 3월 11일 '빈곤의 여성화 반대, 풀뿌리 여성 정치 참여확대, 6·15공동 선언 실현' 등의 주제로 열린 부산여성대회를 함께 진행하였다. 부산지부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 부스를 설치하여 초음 어린이 대공원을 오가는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광주전남, 근로빈곤여성 탈빈곤방안 토론회



98주년을 맞은 '세계 3·8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광주여성대회가 8일 광주 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여성노동자회 등 11개 여성단체 및 노동조합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는 근로빈곤 여성들의 생활과 노동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들의 탈빈곤'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주경기 광주전남지부장의 사회로 '근로빈곤 여성 탈빈곤 방안 토론회'에서는, 황정아 광주여성노동자회장과 김미경 광주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차상위 여성가구주 삶과 노동실태 조사 분석'과 '근로빈곤여성의 탈빈곤 방안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였고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기념대회는 여성노조 풍물패 '두리'의 곱돌이로 힘차게 막을 열었다. 최근 사회이슈가 되

고 있는 장애인 성폭력 문제와 국회의원의 여가 자 성희롱 사건을 주제로 한 여성장애인연대와 여성의전화의 연극은 우리에게 눈물과 웃음을 함께 선사하기도 하였다. 또, 여성노조 조합원들의 율동과 가사협회 회원들이 노래도 선보였다. 이날 3·8상은 그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수상하였으며, 2006년 여성선언문 채택에 이어 광노문연 율동패 '화살'과 함께 신나는 율동으로 대규모 축제의 막을 내렸다.

대전충청, 다채로운 퍼포먼스



대전에서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3월 8일 으능정이 거리에서 있었다. 대전여민회, 전교조 대전지부, 전여노조 대전충청지부 등이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는 빈곤과 비정규직의 철폐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빈곤과 비정규직의 현주소와 요구를 색색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전시회와 '내 머리위의 망치' 퍼포먼스, 소원적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대전시내 여성들과 함께 즐거운 3·8행사를 하였다.

이밖에도 울산에서는 세계여성의날 기념 울산대회, 골든벨, 공연등을 성황리에 마쳤고, 경남에서는 시민과 함께한 거리퀴즈 등 전국에서 풍성한 3·8행사가 진행되었다.

지부소식

서울지부, 롯데잡실 조인식 가져



롯데호텔잡실 골든캐슬분회는 지난 1월에 결성되어 재계약이 체결된 후, 열약해지는 근로조건과 하락되는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5차례의 단체교섭을 통해 지난 2월 24일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서에는 일이 많을 때는 몸 상하는지도 모르고 일하다가 일이 없으면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개수제 임금에서 월급제 방식의 임금구조로 전환, 유니온샵과 복리후생수당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0%를 인상 등이 들어있다. 또한 노동조합 지원금 60만원과 고용안정 및

13일자로 계약해지한다고 통보했다. 회사측은 생산물량 감소로 인해 인원정리가 필요하다는 해고 사유를 밝혔으나 용역회사는 2월13일, 17일째 2차레나 현장라인에서 일할 일용직을 신규채용했고 해고통보를 한 다음에도 이력서 접수와 면접을 보았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부와 세큐리트분회는 인천가좌공장 앞에서 해고 철폐 촉구 집회를 가졌으며 현재 세큐리트정문앞에서 농성투쟁 및 현장지킴이 투쟁중이다. (인천 김미영)

전북, 영양사 힘난한 근로계약

"2006년도 상반기 기간제 영양사 배정알림"이라는 공문이 각 학교로 시달되면서 군산지역은 슬렁이기 시작하였다. 공문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전북지부에서 곧바로 군산교육청 항의를 하였고 교육청은 상반기 인건비 안내라며 다시 각 학교에 근로계약 공문을 시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9월에 정규직이 발령되지 않은 학교에만 기간제 영양사 인건비를 배정하겠다는 공문이 시달된 것이다.

공문이 시달되자 각 학교는 6개월 단위로 계

약을 하거나 정규직이 발령 나면 그만두겠다는 단서조항을 비정규직 영양사에게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전북지부는 교육청에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며 군산교육청 담당자에게는 학교회계직원 근로계약서(예시)대로 하라는 업무연락을 각 학교에 시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북지부와 영양사들의 빠르고 끈질긴 대응으로 군산지역 영양사들은 전년도와 똑같이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전북 박미예)

대전충청, 교육청 면담 진행

대전충청지부는 주5일제 토요일무급의 유급징취와 각 학교의 혼선을 막기 위한 시, 도교육청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지부는 토요일무급에 대해 방증근로시 2배 산정, 방중 각 4일로 대체, 방중 대체근로시 주중 근로시간 연장금지 등을 요구하였고 대전시, 충남·북도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이번 토요일무급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을 하였다. (대전충청 이효미)

사진으로 보는 지부소식



경남지부 과학실험보조원지회는 경상남도교육청의 협조아래 직무연수를 개최하였다. 조합원들이 준비하고 강의한 짜임새 있는 직무연수였다.(경남 박성희)



서울지부는 3월 8일, 5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과 차별 없는 주5일제 실시 촉구대회'를 가졌다.(서울 박성옥)



3월 22일 전북 특수교육보조원들이 전라북도 특수교육보조원지회를 결성하였다. 지금까지 합천 투쟁을 이끈 대표 서진영이 지회장으로 선출되었다.(전북 박미애)



광주전남지부는 3월 11일 전남 화순에서 "힘찬 활동, 신나는 활동"이란 주제로 2006년 상반기 간부수련회를 실시하였다.(광주전남 서은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로!!

조합원과 열린우리당 의원과의 간담회

유진아 | 본조 선전부장



지난 3월 26일 전국여성노동조합(이하 전여노조) 지하교육장에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조합원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우리당에서는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 제종길, 김형주 환노위 의원, 정춘생 여성정책전문위원, 노항래 노동전문위원 등이 참석하여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1시간 여에 걸친 간담회, 이 속에서 논의되었던 약속이 지켜진다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진정한 자리였는지 조금 더 지켜볼 문제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원들의 목소리

민은정(학교비정규직 영양사) : 올해부터 새로 신설된 영양교사 제도에 따라 1700여명의 영양교사가 발령되어 심각한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하영숙(학교비정규직 조리원) :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이 몇 백 명에 이른다. 급식실의 노동강도가 심각하며, 산업재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진(학교비정규직 사서) : 학교도서관이 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인 사서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

조미숙(학교비정규직 과학실험보조원) : 과학실험보조원은 1년을 계약하면서도 실제로는 275직군으로 나뉘어 주5일근무제로 쉬는 토요일이 생기면 방학 때 그만큼 일해야 하는 일용직이다.

김경숙(88cc분회 회계감사) :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협을 체결하여도 형식적으로 단협 무효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또, 직업병과 산재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정숙림, 정귀순(대학교 청소용역) : 최저임금적용이 시급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된 주40시간제가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에게는 실질적인 임금상과

노동강도 강화를 야기하고 있다.

윤금옥, 박희열(호텔 룸메이드) : 직접 고용에서 용역직으로 전환되어 근무조건과 임금의 하락이 발생하였고, 근무조건의 열악함 때문에 조합에 가입한 이후에도 노사간의 갈등과 불신이 높아져 간다. 사용사업주측이 노사간 교섭에 일정한 책임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답변

• 85,000여 명의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상용직과 같이 고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합의하여 당정협의를 통해 2004년 5월에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처우개선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 후 후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2차 대책을 마련하겠다

•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특수고용직은 '특수고용직 권리 보장 입법'을 반드시 연내에 하며 기존 노동조합의 권리를 후퇴시키지 않을 것이다.

• 호텔 룸메이드와 청소용역 등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여성취약근로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가 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노조와 나의 만남

정규직 · 비정규직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안영애 | 서울지부 급식지회 부지회장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한지 어느덧 10년이 되었네요.

세월이 무척이나 빠르다는 것을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에서 많이 느낍니다.

저는 일찍 결혼을 해서 세 아이의 엄마로만 가정에 충실하며 지내느라 직장생활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도 몰랐지요. 남편의 월급으로 알뜰히 사는

것만이 최선이라 여기면서 아이들 키우기에만 몰두했지요. 막내가 유치원 졸업하던 날 지금의 지회장님께서 학교 급식실에 소개해주셔서 취직을 했습니다.

생애 처음 직장이라 얼마나 기쁘고 재밌는 지... 최선을 다하며 요리하고 깨끗이 설거지했지요. 원래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딱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한 가지 한 가지 완성되어가는 요리와 아이들이 "맛있어요 더 주세요" 할 때는 정말 자부심이 컸지요.

세월이 흘러 큰아이가 대학교 4학년, 둘째가 대학교 1학년 때 등록금이 너무 벅차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학교 서무실에 가 "월급 명세서 좀 떼어주세요" 했더니 호칭이 '일용잡급'이라더군요. '일용잡급' 갑자기 무척 창피해지더군요. 자부심 갖고 초등학교에서 조리사로 일한다고 자랑했는데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되더군요. 은행에 서류를

내면서도 왜 그렇게 얼굴이 붉어지던지...

그러다 우연히 전국여성노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취지가 너무 좋아서 지회장님과 같이 바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여러 언니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고충을 이야기 하면서 고쳐야 할 부분과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데 일치하여 열심히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회계직원'이라는 호칭으로 바뀌게 되었고 열심히 조합 활동을 하였던 부지회장이라는 직함도 받았습니다. 모르던 노동법도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여성노동자 선배들의 모진고통과 힘든 일들, 부당한 대우를 무척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지요. 여성노조를 통해 여성으로서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적극 동참해야겠다

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설움을 깨닫으면서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도록 열심히 교육시켜 지금 딸아이 둘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십년 일한 엄마의 월급 봉투가 취업한지 한달된 딸아이의 월급의 반밖에 안되는 것을 보면서 참 허탈했습니다. 일은 힘들고 정규직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도 월급은 적으니 어찌 힘이 나겠어요?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이 없는 직장에서 우리 여성들의 참 권리를 찾으려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요.

열심히 선두에서 서서 우리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계시는 지부장님과 간부님들 그리고 지회장님과 우리 조합원 식구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교육청 앞에서의 1인 시위, 촛고 힘들지만 끝까지 우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투쟁!!!



가라, 빈곤! 오라, 희망!

빈곤추방 여성노동권확보 희망본부 발족에 부쳐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기획국장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지난 3월 25일 [빈곤추방 여성노동권확보 희망본부] 발족식을 갖고 여성의 빈곤을 극복하여 희망을 가꾸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희망본부의 발족 취지와 이후 사업계획에 대해 신는다.

여성노동자의 70%가 일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반복하며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40%밖에 되지않는 급여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간병, 가정파견, 재택노동 등의 비공식 노동자로 일하면서 4대보험으로부터도 제외되어 사회안전망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여성가장으로 밤늦게까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

해 일을 하지만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없어 가난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같은 근로빈곤 여성 현실이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으로 인한 가족해체가 급증하고, 폭력과 가출, 방치되는 아동이 늘어나고, 이혼과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들 가족이 빈곤계층으로 추락하는 현실은 결코 예방될 수 없다. 우리사회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희망을 말하는 사회가 되려면 바로 이같은 여성의 문제를 주목

하고 그 해결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여성노동자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하나의 목소리로,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전국적인 활동을 해나가려 한다. 세상이 알아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어보자. 꿈을 이야기하려면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희망본부를 띄운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은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이루고, 정부정책이 바뀌어야 가능한 것은 전국적인 단결로 정부정책을 이끌어내어 '가라, 빈곤! 오라, 희망!'을 한 번 만들어 보자.

빈곤추방 여성노동권확보 희망본부 사업계획

- 1) 여성빈곤현실 사회에 알리기
 - 지역 상담내용을 전국적으로 모아 언론보도 및 전국 캠페인
- 2) 현실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
 - 가사서비스 종사자 일자리 및 소득안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토론회 개최 (4월)
 - 한부모 자립 지원정책 진단을 위한 토론회 개최 (7월)
 -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활동 (10월)
 - 사회적일자리, 최저임금, 자활지원제도 개선 등 여성빈곤문제 쟁점화 및 개선을 위한 연대활동
- 3) 여성노동자 주체 조직화를 통한 당사자 운동 전개
 - 지역별 희망본부 결성 및 일상활동 참여
 - 지역 희망본부가 지역 여성들을 위한 든든한 언덕이 될 수 있도록 운동본부 활성화에 기여.
- 4) 근로빈곤 여성문제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 한부모 상담실 운영
 - 취업연결, 가사 보육 간병 등 가족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야유회, 심리 정서적 지원 활동 전개

여성이슈

달리는 기차의 꽃? 꽃?? 꽃!!!

유진아 | 본조 선전부장



KTX 개통이 시작된 후 KTX 여성무원들을 일컫어 모 일간지에서 '달리는 열차의 꽃'이라는 표현을 썼었다. 그 때는 그런가 보다, 라며 넘어간 그 표현이 요즘 KTX 여성무원들의 투쟁을 지켜보며 화-뇌리에 꽃혔다. '달리는 열차의 꽃', 남성의 권력이 그대로 묻어나는 표현은 KTX 여성무원들이 영원히 사회의, 그들의 꽃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동일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들과 그들은 구분지어 있었다. 그들은 KTX 열차승무원장으로 공사소속 정규직으로, 그녀들은 자회사의 위탁계약직인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왔다. 이는 명백한 한국철도공사의 성차별적인 비정규직 고용으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성차별적인 비정규직화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인 고용형태를 시정하라는 여러 여성노동단체의 의견서에 한국철도공사는 KTX 열차탑장은 열차 내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KTX 여성무원은 열차 내 서비스를 담당하는 등 담당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답변서를 줄 뿐이었다. 명백한 동일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하면 열차 내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로 여성이 하면 열차 내 서비스를 담당하는 업무로 전환되는 것이다. 부당한 성차별적 비정규직 고용은 단순한 임금의 차이로만 끝나지 않았다. 부실한 업무교육, 근로조건에 대한 심각한 차별, 이로 인한 서비스 질의 저하 등 끝도 없는 문제를 재생산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적 고용관행으로 빚어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지닌 KTX 여성무원들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입장은 냉정하기만 했다. KTX 여성무원들의 거듭된 대화요청에 단 한 번의 대화도 시도하지 않았으며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심지어 한국철도공사는 3월 27일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사옥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KTX 여성무원들을 향해 불법감금을 운운하며 공권력을 투입하여 농성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만으로 모자라 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성무원들에게 직위해제 및 계약해지 통보를 해왔고, 4월 1일 부로 신규채용을 정식 공고화 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식으로든 한국철도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철도공사가 진행해 왔던 모습들을 보면 서 개인적으로 이 사회는 아직도 여성에게 아첨하고 향기로운 백치미를 지닌 꽃이기를 요구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동일 업무에 대해서 어떤 성이 하나에 따라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판단되어지는 사회, 여성의 노동력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말기에 향기롭고 있는 자체로 주위를 환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지만 그것으로 전부이길 바란다. 백치미를 지니며 항상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강요당하는 꽃으로 존재하기를 이 사회가 그들이 아직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KTX 여성무원 사례는 모 일간지의 표현처럼, 이 사회가 여성과 여성의 노동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철도 공사는 4월 1일 신규채용을 정식 공고화한다는 입장이다. KTX 여성무원들의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다. 그녀들이 싸워야 하는 대상은 단순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자본가들만이 아니라, 여성을 꽃으로 인식하는 여성 노동력을 관상용으로 생각하는 그들과 사회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싸움인 만큼 그 싸움이 지닌 의미도 크다. 우리 또한 KTX 여성무원들의 싸움을 단지 그녀들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높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며 그녀들의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마련 워크숍 진행



지난 3월 27일 본조 사무실에서는 전여노조 정책위원 및 박영삼 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기획국장, 홍수경 노무사, 최상림 한여노협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마련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2004년 7월 교육부가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을 발표하지 1년 6개월 만이다. 워크숍에서는 다른 나라의

학교비정규직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비정규직은 어떠한 방식의 정규직화가 가장 적합한가 등을 살펴보았다. 또 학교비정규직과 유사한 직종의 노동조건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학교비정규직 대책의 기본방향을 잡는 자리였다. 4월 중앙위와 상근자 수련회 그리고 조합원들과의 간담회, 토론회를 통하여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본조 이진화)

비정규직 보호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글/그림 정혜용

드디어 통과되었지만 불안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



언젠가는 제대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든든한 다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부산책

투쟁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그녀들, 광주전남지부

김미영 | 인천지부 사무국장

3월 17일 인천은 아직도 찬바람이 불어 두터운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평일 출근보다 2시간 정도 빠르게 준비하고 터미널에 도착해 전화를 기다렸다. 90년 초반 광주항쟁 집회에 참석하려고 산 넘고 물 건너 어렵게 도착한 광주. 매캐한 최루탄 냄새로 우리를 맞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9시 20분 고속버스를 타고 4시간 걸려 광주터미널에 도착하니 아랫녘의 낯씨는 두렵게 끼이고 온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 화창하고 따듯했다. 탐스럽고 향기로운 프리지아를 파는 노점에서 노란 프리지아 몇 단을 사들고 광주지부로 향했다.

광주전남지부는 생각보다 찾기 쉬웠다. 광주터미널에서 신세계 백화점 쪽에서 육교를 건너 버킹검 예식장을 지나(버킹검 예식장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SK 텔레콤 건물 3층에 위치해 있다. 광주에 가실 분들은 한번 들려 보시라.

광주전남지부에서 우리를 처음 맞이해 준 것은 이름도 생소한 여러 가지의 초록색 화초!

화초를 지나 사무실에 들어서니 서은미 총무부장님은 조합원과 통화해 정신이 없었고 문순미 사무국장님이 나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주경미 지부장님은 광주여노회장님과 회의 중이시란다.



왼쪽부터 주경미 지부장, 서은미 총무부장, 문순미 사무국장

광주전남지부 상근 간부들 소개를 간단히 해

보자.

먼저 주경미 지부장은 99년 10월 6일 광주지부 준비위원회 때부터 활동을 해왔다. 전에는 광주지역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일하다, 노동교육협회 일을 하면서 지역여성 활동가들의 만남인 여성부모임을 하며 광주여노회를 알게 되어 여성노조 초창기부터 활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광주전남지부의 든든한 문순미 사무국장은 세 자녀의 엄마여서 아침에 아이를 밥 챙기고 간식까지 만들고 출근해야 하니 아마도 항상 종종걸을 일거라 생각이 든다. 남편이 2005년 4월 민주노총 급속연맹 상근간부로 일하게 돼 일주일에 한번 보는 주말부부란다.

문순미 사무국장은 결혼 전 대우 전자에서 노조활동을 시작해 총무부장, 부지부장을 역임하다 결혼 후 아이들을 돌봐 줄 곳이 없어 현장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경미 지부장의 꼬임에 넘어가 광주전남지부에서 일하게 됐다고 우스개 소리를 늘어 노니 지부장 왈 "자꾸 여성노조에서 일하겠다고 갑죽대잖아" 하신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지부 막내 서은미 총무부장은 2002년 88cc에 입사해서부터 조합 활동을 처음 시작했다. 처음 88cc에 들어와 신입교육을 받을 때 다른 골프장하고 분위기가 너무 틀려 정말 좋았다고 한다. 몇 해 전 설날, 삼촌이 180cm가 넘는 팬장은 남자라고 해 만났는데 직접 보니 170cm이더라. 그래도 엇일 수밖에 없는 인연이었는지, 광주 사는 남편을 만나 이사 오면서 광주전남지부에서 일하게 됐다고 한다.

광주전남지부 조합원의 구성은 98%가 학교 비정규직이다. 광주 뿐 아니라, 목포, 완도, 여수, 조그만 섬까지 조합원이 있어 일년에 3번씩

여행하는 기분으로 멀리 있는 조합원들을 만나러 다닌다.

우리가 광주전남지부를 탐방하던 날은 정규직과 보건휴가 차별로 인권위에 제출할 진정서를 쓰는 날이었다. 오전에 문순미 사무국장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니 조금 있으면 조합원들이 올 거라고 한다. 정말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 되자 먼저 급식지회 지송자 부지회장이 도착했다. 그래서 몇 마디 물었다.

"여성노조는 어떻게 알고 가입하게 되셨어요?"

아는 언니가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고, 마침 친구가 지부장 명함을 갖고 있어 가입하게 됐어. 그리고 영양사, 조리사는 협회 모임이 있었는데 급식조리원은 모임이 없어 의견 취합이 어려워서 그래서 여성노조에 가입하게 됐어.

"급식조리원은 노동 강도가 세, 일 끝나고 노조 활동하는데 힘드시겠어요?"

일 끝나고 찾아오는데 힘들긴 해도 모임 전 화요일엔 해야지, 우리권리 찾으려면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상근자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송자 급식지회 부지회장과 간단한 인터뷰가 끝나자 급식지회 간부들이 하나둘씩 도착해 진정서를 쓰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 서은미 총무부장에게 "지부장님 어떠세요, 일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라고 묻자 "지부장님은 카리스마 주예요, 실무자들의 잡지는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끌어내 줘서 신나게 활동할 수 있어요" 한다.

그리고 이야기 꽃을 피우다 지난 학교비정규직 집회 에피소드를 이야기 한다.

(지부장 왈) "교육청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



작년 교육청 앞 집회 당시

데 뭔가 퍼포먼스를 준비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다섯 가지를 박스에 써서 화형식을 하려고 햇볕에 불을 당겨 박스에 갖다 댔지만, 이놈의 전경 새끼들이 소화기로 불을 끄드만, 그래서 조합원들이고 상근자들이고 열받아 전경을 밀쳐서 이놈들이 그냥 넘어 가드만 그래서 교육청 안으로 들어갔지. 아따 교육청 놈들이 문을 다 잠가 붙드만 그래서 구호외치고 하다 교육청에서 나와 정리집회 했지."

며칠 후에 지부장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소, 느그들이 평화집회 하는데 집회 방해한 것 아니냐, 느그들 평화집회 방해했으니 우리가 고소할 거야." 라고 큰소리 뽕뽕치며 으름장을 놓았단다. "우리 지부장님 정말 멋있지요?" 라고 서은미 총무부장이 웃는다.

마지막으로 상근자들에게 "일하면서 뭐가 제일 재미있어요?" 라고 묻자

이구동성으로 "아따 물론 투쟁이 제일 재미있지."라고 한다.

광주전남지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들을 생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광주전남지부 파이팅!

[여유] 3월의 책이야기

「섬진강이야기」 김용택

이미주 | 광주전남지부 사서지회

창 너머 들어오는 봄은 몇 주 전에 오들오들 떨면서 보던 것이 아니네요. 따스한 봄 아래서 두 눈을 꼭 감고 잠들고만 싶어집니다. 해마다 봄만 다가오면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지 이 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랜만에 새벽 조깅을 했어요. 날이 풀려서 이전 새벽녘에도 출근이 않아 마음먹고 조금 일찍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뒷동산은 근처 주민들이 모두 즐겨 찾는 운동코스죠. 그 곳을 향하는 길에 매화나무 군락이 있는데 벌써 꽃을 피웠더군요. 조깅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매화꽃이 만발한 섬진강에 꼭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주위에 매화꽃, 산수유꽃, 복련꽃, 개나리 등 온갖 종류의 봄에 전령들이 다가왔으니 짧은 이 봄을 그냥 보내 버리기엔 아깝잖아요.

화사한 3월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전해도리고자 하는 책은 바로 「섬진강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서점에서, 도서관에서 우연히 보신 분들도 계시길 겁니다. 이 작품은 저자 자신이 섬진강 주변을 2년 넘게 뒹굴면서 사진 촬영과 함께 아름답고 시적인

글귀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경험의 가장 정확한 거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들은 작은 활자들을 통해 경험하게 되지요. 이 작은 책자 안에 섬진강의 모든 전경들이 아름답게 서술되어 있어요. 개울을 따라 피어있는 꽃나무들과 파릇파릇 올라오는 새싹들...

「섬진강이야기」는 1~2권으로 나뉘어 있고,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사진을 바탕으로 길지 않은 글귀여서 봄별 아래 지루하지 않게 읽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글과 사진들로도 모자라 꼭 3월 달 중 한번은 섬진강 주변을 가 볼 참입니다. 올 해 힘들게 시작하고 바쁜 새 학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런 때 자그마한 여유를 가져보려 해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섬진강에 주변에 피어나 있을 포근한 노란 쿠션 같은 산수유 꽃들과 화사한 매화꽃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 일손을 놓고 창밖에 이미와 있는 봄을 만끽하세요. 우리 가슴에 하나하나 새겨주는 「섬진강이야기」 활자 속에서 봄꽃이 만발한 섬진강으로 저와 함께 가요.

따뜻한 봄날에 봄날 같은 날도 광주에서 미주가 전해드립니다.

황금똥으로 아이의 건강을
달숨으로 여성의 건강을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에서
팬티형 천기저귀와 면생리대를 판매합니다.

아토피 NO! 기저귀발진 NO! 팬티형 천기저귀 황금똥
아이의 피부를 걱정하신다면 지금 바꾸어 보세요.
천기저귀의 장점은 그대로, 팬티형으로
편리하게 변신한 천기저귀 황금똥입니다.

짓무름, 가려움증, 생리통, 냄새걱정 끝
숨쉬는 면생리대 달숨
소중한 내 몸을 생각한다면 지금 바꾸어 보세요.
순면 100%의 감촉, 화학물질이 전혀 없는
안전한 생리대 달숨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몸을 생각합니다.

www.littlechai.com

“전국여성노조 노보의 이름을 찾습니다!”

‘고용안정·모성보호·평등세상 전국여성노조’를 대체할
산뜻하고 참신한 이름을 찾습니다!

2006년 5월 31일까지 kwunion@kwunion.or.kr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입선작 5개를 선정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